지난 6일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강 작가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강, 스웨덴 한림원서 노벨문학상 첫 기자간담회

"2024년 계엄 상황에 충격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낙인 찍혀 가슴 아팠다 문학은 여분의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

"바리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마 많은 한국분이 그랬을 텐데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서 계속 뉴스 보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 그러셨을 것처럼 저도 충격이었다."

지난 6일 오후 1시(현지시각, 한국시각 오후 9시)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세계 기자들이 모인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사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강이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한강은 계엄 선포 상황과 관련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1979년 말부터 진행됐던 계엄 상황에 관해 공부했는데,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반복하면서 "이번 겨울의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었단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행동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장갑차를 멈추려고 애쓰시던 분도 보았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는 모습도 보았고, 총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써보려는 사람들 모습도 보았다"며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지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젊은 경찰분들, 젊은 군인분들 태도도 인상 깊었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소극적이었겠지만 보편적 관점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는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산티아고에 가서 학생들의 토론과정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깊게 생각하고 소설을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것에 감명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채식주의자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감하면서 읽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 책의 운명"이라면서 "이 소설에 유해 도서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강은 "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우리가 책들을 읽으면서 공존하는 법, 타인을 이해하는 법,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뭔가 성숙한 태도도 갖게 되고 좀 열려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된 달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인문학적인 토양의 기초가 되는 것이 도서관인데 사서 선생님들의 어떤 권한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책을 덜 읽는 시대 이 세계에게 문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기위해서 애쓰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문학은 언제나 여분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릴레이 오디오북 콘서트 열린다

전주문화재단, 9일 완산도서관 · 10일 삼천생활문화센터서 개최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9~10일 이틀간 '2024 릴레이 오디오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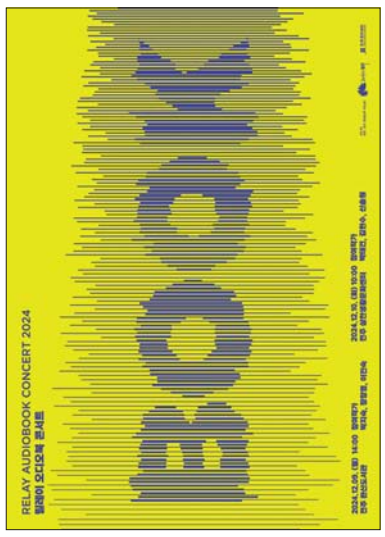
이번 콘서트는 오디오북을 발간한 작가 6인이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다.

먼저 9일 14시, 완산도서관에서 시와 수필과 동화를 오디오북으로 즐길 수 있다. 장창영 시인의 오디오북 시집 '황태, 설악을 훔치다', 박지숙 작가의 오디오북 동화 '창문 너머의 너', 이진숙 작가의 오디오북 수필집 '우리, 이제 피어날 시간'을 함께 감상하고, 작가와의 대화, 작품의 문장들을 관객들과 낭독해 보는 문장나눔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10일 10시, 삼천생활문화센터에서는 박태건 시인의 오디오북 시집 '나바위성당 팔각창문 아래에서', 김헌수 시인의 오디오북 시집 '저녁 바다에서 우리는', 신솔원 작가의 '엄마와 나의 산행일기'를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으로 만난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의 작가와 작품을 전국의 독자들에게 알리고, 점점 커지는 디지털북 시장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재단 중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계에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문학을 경험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학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 릴레이 오디오북 콘서트' 포스터

전주예총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10일 '버텨온 30년, 일어설 10년' 주제 진행

전주예총(회장 정두영)은 오는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주예총이 출범한지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텨온 30년, 일어설 10년'이라는 주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의 예술문화를 지켜온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과 고단함을 함의하고 있다.

포럼에는 총 8인의 공연·시각·미디어아트·문화축제 전문가들과 문화예술지원기관의 행정가 등이 참여해 전주예총 30년의 성과와 한계, 최근 트렌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두영 회장은 "먼저, 30년 동안 전주의 예술문화를 지키며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준 선배, 동료 예술인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공예트렌드페어서 '남원 옻칠관' 운영

12~15일 서울 코엑스서 진행

남원시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한다.

공예트렌드페어는 국내 최대 공예 전문 박람회로, 옻칠 목공예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인 남원시는 2018년 '남원의 목기·컵'을 시작으로 매년 참가하여 남원의 옻칠 목공예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남원시는 "남원의 옻칠"을 주제로 '남원 옻칠관'을 운영한다.

남원 옻칠관의 콘셉트는 "남원의 옻칠을 활용한 현대적 가구"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남원의 정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옻칠을 활용한 현대 가구를 선보임으로써, 옻칠 공예의 현대적 예술성과 실용성을 전국의 공예인들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옻칠은 방충, 방수, 방부, 탈취, 향균, 원적외선 방사 등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전통 도료이다. 남원은 목기의 전통 고장으로 목기 제작 과정 중 마감 작업인 칠 작업을 위해 옻칠 정제와 칠 전통 기술이 함께 발전한 지역이다. 특히 무형유산 목기장 3명과 4명의 옻칠·정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 기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4 공예트렌드페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cdf.kr/craftrendfair/main/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예술로 어울림 성과공유회 진행

'2024 예술로 어울림'의 성과공유회가 지난 7일 석정문학관에서 개최됐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관계망 형성과 삶의 활력제고,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운영했다.

2024 예술로 어울림은 △탐방(부안의 서사를 찾아서, 산들바다 자연예술놀이터), △공연(두드리고 하나되고, 촛불시인 선은리에 오시다), △공예(푸른부안 청자한끼, 도파밍, 조물딱조물딱 공예로 피운 꽃), △집이예술공간(집이 작업실, 판화실, 도서관) 4개 테마, 10개 프로그램 운영되었으며 지난 11월 26일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재단은 사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한데 모아 '어울림'이라는 테마로 12월 7일~14일 토요일까지 8일간 석정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특히 성과공유회가 열리는 첫날인 7일은 부안의 '갯벌'을 주제로 3명의 예술가가 전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발표에 이어 공연, 예술가와의 만남, 신체놀이 워크숍까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예술로 어울림 사업에 참여한 167명의 성과물이 전시되며 12월 14일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랑나눔 공예옥션' 수익금 전액 기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4일 원장실에서 '사랑나눔 공예옥션'의 공예 판매 수익금 2백여 만원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김도영 원장과 방화선 무형유산(전북무형유산 제10호 선자장), 윤성호 이수자(전북무형유산 제45호 우산장), 노진선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수익금은 전북 무형유산 장인과 지역 공예작가들이 제공한(기부) 작품 판매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사랑나눔 공예옥션' 경매에는 △박강용 옻칠장의 색칠수저세트 △최대규 나전장의 나전수저세트 △안시성 옹기장의 옹기접시 △한병우 작가의 천연염색발 △방화선 선자장의 단선세트 △권원덕 작가의 필함 △김문식 작가의 청자투각용머리장식 붓꽂이 △이종덕 방짜유기장 등 무형유산 장인과 지역 공예작가의 작품 14점이 출품된 가운데 행사 시작 1시간여 만에 모든 작품이 낙찰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기부금은 전북 무형유산 장인과 지역 공예작가 기부를 통해 이뤄진 만큼 더욱 뜻깊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소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25회 고창문학상 시상식 · 제57호 고창문학 출판기념회 열려

올 한해 고창문학 발전에 공로가 큰 문인에게 수여하는 제25회 고창문학상 시상식 및 고창문인들 작품들을 한데 모아 출간한 제57호 고창문학 출판기념회가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지부장 강복남)의 주관으로 지난 6일 고창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고창문학상은 1996년 故류공선 선생님의 아름다운 초심을 이어받아 25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제25회 수상자로는 임동옥 수필가가 선정되어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고창문인협회 회원들의 정성어린 원고와 제21회 꽃무릇 시화전시·시낭송회 수상작들로 구성된 제57호 고창문학 발간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애써주신 강복남 지부장님을 비롯한 고창문인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내년에도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 고창문학이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